

실협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7월 3일 수요일 제779호



지난 6월 23일 (일) 수도 오타와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 추모식이 개최됐다. 전쟁발발 69주년, 휴전 66주년을 맞은 이날 행사에는 본 부협회 신재균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과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 총연합회(UKCIA) 각 지역별 대표단 등 캐나다 한인 편의점 업계 대표 인사들 14명이 함께 참석해 임시 총회와 경제세미나를 겸해 행사의 의미를 더 깊게 했다. (관련 기사 및 화보 4, 5, 13면 참조)



www.okba.net Publisher : Jae Gyun Shin /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7월의 SUPER SUMMER WEDNESDAYS

매 주 수 요 일 | 7 월 3 일 - 31 일

\$10,000

보장 상금 20개

+\$1 백만 보장 상금

+1 등상



신규 직원 복권 판매 교육

복권을 판매하거나 당첨금을 지급하는 일을 할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책 메뉴얼 제4.1절 연령 통제(Age Control) 및 제5.1절 인증 절차(Validation Procedures)를 비롯한 OLG의 중요한 규정 준수 요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으도록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핑이 시행되며, 흔히 신규 직원 또는 비상근 직원이 불합격 사유가 되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 OKBA 회 장 : 신재균 (Jae Gyun Shin)
OKBA 부회장 : 송명현 (Myeong-Hyeon Song)
- 사업개발팀 : 이주녕 (Brian Lee) brianjn1108@okba.net
- 홍보팀 : 실장 김광일 (Ted Kim) tongilisysj@yahoo.com
- 디자인팀 : 현미영 (Mimi Hyun) mimihyun@okba.net
- 회계팀 : 김세환 (Justin Kim) accounting@okba.net
- 본부협회 : Tel (416) 789 - 7891 / Fax (416) 789 - 7834

■ 이사회 : 이사장 이두승 / 부이사장 신영하

■ 감사위원회 : 박영하 / 송구영 / 이만석

■ 분과위원회 : 장학 분과 / 회칙 분과 / 특별사업 분과
상별분과 / 선거관리 분과

■ 지구협회 : < 광역 토론토 지구협의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416)895-1277
- Newmarket 회장 금동진(905)836-6429
- North York 회장 방성덕(416)221-7091
- Peel 회장 이수봉(905)813-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905)471-8079
- Scarborough 회장 엄종호(416)759-4503
- Toronto East 회장 김종범(416)363-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416)975-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416)604-3116

< 남서부 지구협의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519)756-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905)679-4812
- London 회장 오세정(519)432-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홍기(905)354-1313
- Waterloo 회장 최상겸(519)579-8130
- Windsor 회장 윤문성(519)326-1832

< 동북부 지구 협의회 >

- Durham 회장 이현식(905)579-2500
- Huronia 회장 배종민(705)436-2248
- Kingston 회장 이강경(613)967-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519)323-4311
- Peterborough <공석>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 : 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04 - 05, 07 / UKCIA 임시총회 / 경제세미나 개최

06, 08 - 11 / 변화의 사례 :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上)

12 / 중·소기업 K-Beauty 캐나다 진출

13 / UKCIA 임시총회 / 경제세미나 개최 주요 장면

14 / 베이핑 제품 취급실태, 연방 단속 나서
이토비코 지구협회 골프대회

15 / OKBA 골프대회 주요 장면

16 / 줄(JUUL) 제품 짝퉁 거래 절대 피해야
PEI 일회용 백 없애기 최초의 썸

17 / 독자투고(김윤배 회원) : 책상앞에서

18 / OKBA 골프토너먼트 성료

19 / DIRECTORY

20 ~ 23 / K.B.A. 협동조합 7월 스페셜



2019 여성의 밤 '화려한 부활' 온타리오 호수 크루즈 파티

선상위에서 야경을 보며 즐기는 식사와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음악(밴드, 기타). 여성 회원만을 위해 엄선된 Raffle
Prizes 기회를 잡으세요.

- 일시 : 2019년 8월 15일 (접수 5:30pm / 출항 6:00pm)
- 장소 : 온타리오 호수 선상
- 참가신청 : 각 지구협 회장에게 신청
- 참가자격 : 실협 정회원
(비회원은 물론 회원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회원도 절대 참가 불가)
- 참가비 : \$60

UKCIA

임시총회 / 경제세미나 개최

오타와에서, 한국전 추모식 참가로 의미 더해



▲ UKCIA 임총 겸 경제세미나가 마이클 베렛 연방 보수당 의원을 초청해 열리고 있다. 전국 차원의 편의점 업계 이슈와 관련한 활발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 United Korean Commerce &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 이하 UKCIA 또는 총련) 임시총회가 지난 6월 23일 (일) 수도 오타와에서 열렸다. 매년 가을에 정기총회 겸 경제세미나를 열어오던 것을 가을 연방 총선때문에 상반기로 당긴 것이다. 협회에서는 신재균 회장, 이두승 회장, 김광일 홍보실장, 조합의 심기호 부이사장이 참가했다. 가을에는 다른 지역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것이며 한상대회 참석차 모국 방문 시 모국에서 가지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총 14명의 지역 대표들이 모인 이번 임시총회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식 참가로 의미가 더 깊었다. 국회 의사당 건너편 국립전쟁기념탑(The National War Memorial)에서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엄숙히 진행된 헌화식에는 협회 회장이자 총련 회장인 신재균 회장이 참가해 헌화했다. 약 1시간에 걸친 행사는 전통 복장을 한 50여 명의 백 파이프 연주단의 애국가 및 오캐나다 연주로 시작해 한국전 참전 기념 위원회 주요 인사들의 추모 연설로 이어졌고 영어, 불어, 한국어 3개 언어로 추모 낭독도 있었다. 재향군인회 한인 동포들도 토론토에서 대거 참석했고 본부 협회 주점식 이사는 캐나다 한인 총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역시 헌화식에 신 회장과 함께 나가 헌화했다. 새로 회장이 된 이진수 토론토 한인회장

도 행사장의 VIP석에 앉았다.

행사가 끝나고 인근 페어몬트 호텔에서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이 마련한 오찬을 즐겼다. 신맹호 대사 부부가 노병인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경향 각지에서 행사에 참석하러 온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했다. 신대사

지금
전화주세요!





박효진(Roland Park)
Cell.416-985-5287

Main : 905-770-8828
Fax : 905-770-8851
roland.park@brokerteam.ca

실협 단체보험

의 감사 메시지 연설이 있었고 연아마틴 상원의원 역시 한국말을 섞어가며 환영 인사를 했다. 주캐나다 각국 대사관의 무관 부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수준높은 합창 감상이 있었다. 흥겨운 노랫가락에 맞춰 박수로 장단을 넣고 따라 부르는 등 화합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후 식사에 들어갔는데 한식 뷔페로 차려졌다.

오후 4시부터 상원 의원 건물 회의실에서 전국적인 편의점 업계 관심사를 집중해 다루었다. 연방담배갑 포장 통일화 일정과 현황,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주별 시행 상황을 다뤘다. 온타리오주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술판매 소매채널 확대 정책을 타주 소매판매 현황과 비교하며 향후 편의점에 미칠 긍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전망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주제는 베이핑 제품에 관한 논의였다. 이미 전자담배가 대세이고 일반담배 소비 감소라는 자연적 현상과 물려 대부분의 주에서 크게 부상하는 것은 공통된 현상임을 확인했다. 두시간 가까이 진행된 세미나 전반 한시간 동안은 연방 보수당 마이클 베렛(Michael Barrett)의원과 주요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주로 편의점 업계의 이슈들에 대해 가을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보수당의 입장을 확인해보는 의미가 컸다. 의원의 지역구는 관광명소인 천섬(thousand islands)과 그 주변으로 소상공인 발전 대책에 대해 평소 관심이 큰 정치인이다. (지역구 : Leeds-Grenville-Thousand Islands and Rideau Lakes) 불법담배 근절책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매우 깊었으며 집권 여당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지는 않겠지만 소비자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와 연구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연방 제 1야당인 보수당 앤드류 쉬어(An-

drew Scheer) 당수가 베렛 의원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왔으며 이를 의원이 회의 중간에 낭독했다. 메시지 서한은 신재균 회장에게 전달됐다. 내용은 “올해 7회차를 맞는 UKCIA 경제세미나 행사를 축하하며 20만 명이 넘는 한국계 캐나다인들의 캐나다에 대한 헌신적 기여와 공로를 치하한다”는 의미였다.

한편, 상원 의원 건물은 의사당 본관에 있었으나 향후 15년에 걸친 장기간의 보수 공사로 과거 유니언 스테이션 건물을 개조해 금년 봄에 이전해왔다. 유니언스테이션 건물은 상원 회관으로 변신하기 직전까지 정부 컨퍼런스 센터(Government Conference Centre)로 이용돼 왔다. 연아마틴 의원의 수석 보좌관 조은애(영어명 그레이스)씨의 안내로 이전된 상원 회의장을 비롯한 부속 시설들을 둘러봤다.

두시간 토의가 끝난 후 연아마틴 의원이 제공한 도시락과 와인을 회의실에서 즐기며 안전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교환했다.

다음날인 24일(월)에는 아침 일찍 협회 참석자 4명만 별도로 국회의사당 건너편 퀘벡 주로 건너가 독립 편의점 한 곳과 체인 편의점 한 곳을 방문했다. 퀘벡 주 편의점(테관노)의 주류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온주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편의점 출입문 밖에는 24개 팩 맥주 할인 광고판이 당당히 자리잡고 있었고 그리 크지 않은 내부에 여러개의 쿨러가 늘어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진열하고 있었다.

가격은 각종 보고서에서 밝혀진대로 온타리오보다 훨씬 저렴했고 업주 입장에서는 마진율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온타리오 편의점 경기 진작을 위해 주류판매 허용이 절박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체험이었다. 신재균 회장은 “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류 판매 소매채널 확대

<7면에 계속>

CLOUD SERVER를 통한 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실시간 고객 매출등의 데이터 정보교환 가능

“1Solutions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 보입니다!”

포스 가격

\$2500 + Tax
(바코드 스캐너, 금전함, 소프트웨어 포함)

1 SOLUTIONS
DATA CORPORATION

www.1solutions.ca
info@1solutions.ca

일체형 연동 포스시스템

Made in Korea

**빠르다!
간편하다!
저렴하다!**

OLG 온라인 로또 포스터 판매




Toll Free. 1(888) 554-7355 Korean(ext 4)

Direct Line. (905)560-4511 (416)900-7533

Fax. 1(888)554-0409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上)

온주 술판매에 대한 특별자문관 휴즈씨 보고서

온주 정부의 주류판매 소매채널 확대를 위한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초에 걸쳐 LCBO 산하의 대리점과 유사한 소매 채널이 200개 새로 오픈하고 식품점에도 80여개가 넘는 업소가 추가로 맥주 판매 허가를 받는다. 정부의 공약이 단계적으로 시행 수순을 밟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편의점 업계에도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책에 대한 저항이 완강하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과 미성년자의 술 노출 기회 증대에 대한 나름의 우려감을 갖는 부모들이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업계는 연령제한 품목에 대한 가장 철저한 연령 확인을 해 온 채널임을 오래 전부터 증명해 보인터라 이 정부는 편의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온주정부가 의뢰해 진행됐던 현행 온주 주류시스템 개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조사 작업이 있었고 그 결과 보고서가 지난 5월 말에 공개됐다. 핵심 내용은 이미 몇차례 언론을 통해 그리고 협회 실험뉴스에도 소개됐었다. 알버타 주 의원과 연방 의원을 역임했고 기업인으로, 공공 기관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켄 휴즈(Ken Hughes)씨가 이 조사의 책임자였다. 직책은 Ontario '온주알콜정책검토 특별자문관(Special Advisor for the Beverage Alcohol Review)'이며 보고서 타이틀은 『변화의 사례 :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The Case for Change: Increasing Choice and Expanding Opportunity in Ontario's Alcohol Sector)였다. 이하 주요 내용을 번역 정리해 몇차례 나눠 연재로 소개한다. 편의점 주류 판매에 대한 반대 주장을 물리칠 객관적이고 탄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관계가 깊은 회원들이 숙지를 위해 정독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 서문 (자문관의 서신)

May 24, 2019

피델리 재무장관 귀하


(*장관은 지난 6월 20일 부분 개각 시 장관직에서 물러났음)

온타리오는 한 세대에 한번 올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음아닌 소상공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가 주

류 구입의 선택과 편의성 증진입니다. 지난 92년의 세월 동안 이어진 정부들은 여러 법령, 그리고 법령의 헛점, 제도, 특별한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점차 맥주 공급의 독점 체제를 굳혀왔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극소수의 대형 맥주제조사에만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소비자, 시민,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것들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LCBO대리점(agency)을 더 증가시키고 현재 주류 취급을 허가받은 식품점보다 더 많은 식품점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8면에 계속)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개인 상해	교통위반 티켓	형법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	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뺑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	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5면에 이어〉 UKCIA 임시총회 / 경제세미나 개최

정책 지원에 지금보다 더 분발해야 하겠다.”면서 장애요인 제거에 보다 스마트한 접근책 강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굴들이 많았던 터라 친분 다지기라는 차원에서도 이번 임총 겸 경제 세미나 기회는 의미가 컸고 UKCIA 총연 회장을 OKBA가 자동으로



▲ 퀘벡은 사진에서 보듯 편의점에서도 술을 판매하며 온타리오 LCBO와 동일한 성격의 SAQ라는 주류공사 소매채널이 있어 민관 2원화 판매체제이다. (사진에서 보듯 편의점 쇼윈도우에 맥주 브랜드 선전물이 보란듯이 걸려있다.)

퀘벡 편의점들을 둘러보고 되돌아온 협회 대표단은 타 지역 대표단과 숙소 인근 한인 식당에서 석별의 점심을 들며 사업 구상에 관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담화를 나눈 후 가을 정기총회를 기약하면서 헤어졌다. 1년 사이에 일부 지역의 회장 혹은 이사장 교체가 있어 새 열

결하게 된다는 정관에 따른 첫 회의를 잘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참석자들 전원은 23일 본 행사날의 짧은 자유 시간을 이용해 오타와 강 유람선 관광을 하며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윈도매싱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t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선택의 폭과 편의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둘째, 온타리오 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시스템에 주목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맥주판매 시스템이 경쟁에 반하고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다국적 소수 기업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맥주 소매시장의 70% 이상을 극소수 다국적 맥주회사의 콘소시엄에 내맡기는 곳은 없습니다. 12개 또는 24개 팩 단위 판매는 오직 이 회사들에만 부여된 독점권입니다. 대단히 유리한 지배구조하에 몰슨, 라바트 등의 맥주회사가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점(寡占)형태의 맥주 판매 구조는 온주 소비자의 희생의 댓가입니다. 선택의 폭이 좁고 구입에 불편한 구조입니다. 사실 캐나다 내에서 어느 주에 비해 온주 주민수당 술 구입 소매업소 수가 작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못하며 지역산 중소 맥주회사에도 불리하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가 비어스토어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압니다. 소비자의 권익 증대와 중소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 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비어스토어와의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로 귀결된다면 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권한의 범위에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주류 소매 판매 채널의 확대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류 판매 소매채널 확대라는 이 정책하에서도 주민 보건과 안전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국내 최대 헬쓰케어 서비스 기관의 하나였던 곳의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본인의 경력을 배경으로 말하건 데 본인은 이 주제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부에 자문을 계속해 줄 것입니다.

넷째, 온타리오는 지금 맥주, 와인, 사이더, 그리고 독주(毒酒) 등 다양한 주류 비즈니스가 부상하며 발전하는 호기를 맞이해 이를 한껏 격려 고무할 만 합니다. 이 사업은 온타리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많은 지역에서의 일자리 추가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수 많은 온타리오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Ken Hughes 올림.
Ontario Special Advisor for the Beverage Alcohol Review

1. 개요

온타리오의 전근대적 주류 소매 시스템

일상적인 온주 주민에게 있어서 술을 사는 일은 지난 92년 동안 불만의 연속이었다. 1960년대 이후 이를 개선하려는 특별 조사를 7 차례나 시행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정부에 와서 소비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편의성과 공정성 증대를 도모하는 획기적 조치들을 취할 권한을 행사하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온주 정부의 현행 주류 소매 판매 구도는 복잡하고 다각적이다. 가장 큰 채널은 LCBO이며 정부 소유로 주 정부 재정에 큰 몫을 기여하고 있다. 2017/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21억 2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다

음으로 맥주 판매는 TBS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3개 다국적 맥주회사가 TBS에서의 쇼핑은 지난 세기에 걸쳐 거의 변화가 없다.

소매시스템 비교	온타리오	퀘벡	알버타
1인당 소매업소수	2.4	12.2	6.4
소매가격 결정 과정	모든 소매 채널 가격이 일률적이며 생산자에 의해 결정	소매업소 상호 경쟁 및 가격 자율 결정	소매업소 상호 결정 및 가격 자율 결정
소매 채널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영 전문매장 ● 일부 식품점과 와이너리 직영 소매점 ● 제조사 현장 직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영 전문매장 ● 식품점 ● 편의점 ● 대형 유통업소 ● 제조사 현장 직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 전문매장 ● 제조사 현장 직판 ● 다양한 형태의 소매업소

온타리오는 현재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로 따져 소매업소 수가 가장 낮다. 이는 공정성 문제와 직결되는데 도시에 살지 않거나 차량이 없는 주민들에게 있어 특히나 문제가 된다. 전국 평균에 이르려면 추가로 4,000여 개 소매업소가 더 필요하다. 퀘벡 수준에 이르려면 11,500여 개가 더 필요하고 알버타 수준에 맞추려면 4,500여 개가 추가로 요구된다.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

· 불공정한 계약 'Master Framework Agreement'

온주 주류 소매 시스템 개선의 여러 난관들은 지난 2015년에 당시 자유당 정권이 체결한 MFA((Master Framework Agreement)계약에서 비롯되고 있다. 비어스토어 소매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3개 대형 맥주 회사가 계약 파트너였다. 내용 중 하나는 12개와 24개 팩 맥주 판매 독점권을 오는 2025년까지 가지는 것이다. 또, 추가로 허가할 신규 맥주 판매 소매업소 수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내용도 있다. 온타리오 주민에게는 불리한 내용들이다. 바로 3개 대형 맥주 회사에 온타리오의 맥주 시장을 온전히 맡기게 되기 때문이다. 경쟁을 방해하고 가격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되며 새로운 중소 맥주 회사의 시장 진입의 장벽이 높아진다. 진정한 선택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주) 하이쿨 텍
냉동·히팅

“신속하고 쿨한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Canada Heating & Cooling Licensed Technician



HI-COOL TECH
에어컨 설치 문의 환영
김순석 (Peter Kim)

전문적인 기술자가 뭉쳐 기술 시너지 효과 (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 업소용 - 냉동, 히팅, 에어컨, 워킹콜러/후리저, 닥트, 케노피
- 가정용 - 냉장고, 히팅, 에어컨, 전기, 배관 외
- 상업용 - 공장, 상가 및 교회 건물관리 (냉난방 시스템 외)
- 선택전문점 장비 일체 수리
- 자동차어, 수중모터 및 보트엔진 수리 외



장거리 출장수리 가능

신용과 책임을 우선 합니다

416.909.7114

비어스토어에 들러보면 쇼핑 여건이 마치 1세기 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분위기이다. 제품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차단돼 있고 소비자들은 로고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런 모습이 비어스토어 과점(寡占) 체제를 더 강화시킨 요인이다. 2015년 이후 비어스토어가 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쇼핑 체험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쇼핑 경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빈병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동네 비어스토어 매장을 가야 한다. 빈병수거에 대한 독점권은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소비자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을 희생시키며 몇개의 최대 규모 맥주 회사에만 특혜를 주는 정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전 자유당 정부가 체결한 MFA계약은 온타리오 소비자들과 소상공인에게 끔찍한 거래이다. 게다가 불공정한 현 시스템이 앞으로 남은 6년을 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민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 구축

주류 소매 판매 현대화는 온타리오 주민에게 중대한 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소매전국소매업협회(RCC)의 추산에 따르면 이 현대화 작업으로 온타리오 GDP가 35억 달러 추가증대 될 것이고 9,100명까지 추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다. 이는 B,C주의 사례에 근거한 산출이기도 하다. 윈스턴 쇼핑의 더 많은 기회 창출로 온타리오 주민이 연 평균 기대할 수 있는 절약액은 수억 달러에 이를 것

로 본다. 온주 재무부는 일반 쇼핑을 하면서 술도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누림으로 인해 절약되는 시간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때 연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주류 소매판매 채널 확대는 또 지역 중,소 맥주 회사들과 소비자들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전국편의점산업협회(CICC) 보고서는 술을 즐기는 10명의 온타리오 주민 중 7명이 편의점 술판매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RCC 보고서에서는 온주 주민의 73%가 12개 또는 24개 팩 맥주를 식품점에서도 판매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68%는 온타리오 전역의 모든 식품점에서 술판매가 허용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해 온주 정부는 소매업소, 주류 제조사, 공중보건 기관, 치안조직 등 30 곳이상의 이해당사자들을 접촉했고 50곳 이상의 유관 단체로부터 문서로 견해를 제출 받았다. 정책과 관련한 잠재적 기회 요인, 위험 요인, 해결 과제 등을 논의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또 온라인을 통한 여론 수렴 작업을 해서 33,000명 이상의 소비자, 비즈니스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소비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양호한 평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본 보고서는 온주 주류 시스템의 공정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9가지로 요약한 바, 다음과 같다.

1. MFA 계약을 유지하는 한에서 주류 판매 소매 채널을 추가로 확대할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
2. 비어스토어와의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 권한 범위 안에서 소매 채널 확대가 가능한 방안도 강구

3. 신규 소매업소 및 판매 가능한 주류 범위 허용의 단계적 접근
4. 소매 채널 사이의 가격 경쟁 허용
5. 온타리오 와인 제조사 및 와인 농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제 규약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온타리오 와인 산업 발전을 위한 최선의 지원책을 수립
6. 온주산 주요 증류주(spirits ; 毒酒) 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 제고
7. 현존 LCBO를 정부의 가치있는 자산으로 계속 유지
8. 주류 구입의 편의성 증대가 주류 관련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매업소, 제조사, 공중 보건 전문가 등과 공조 체제 가동
9. 해당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성 제거

2. 변화의 사례 - 핵심 목표들

온타리오에서 금주령(prohibition)이 끝나던 1927년에 당시의 온주 정부는 알콜 판매 및 소비에대한 강력한 통제책을 펼쳤다. 22세 이상의 시민들만이 술을 살 수 있었는데 운전면허증같은 각 개인별 주류구입 허용증을 휴대하고 다녀야 술 구입이 가능했다. 1960년대에는 술 구입 시 구입 양식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구입자 성명, 주소에 사인까지 해야 하는 양식이었다. LCBO는 모든 제품을 손님 눈에 안띄도록 차단 벽 뒤에 보관했고 갈색 종이봉투에 술을 담아 손님에게 건넸다. 60년 말에 이르자 온주 주민들은 술 사는 것을 마치 범죄행위처럼 취급하는 이같은 술소매 시스템에 염증이 나기 시작했다. 69년에 변화의 조짐이 시작됐다. LCBO가 손님 스스로 술을 고를 수 있도록 시범 업소를 운영했다. 양식 제출하고 가려진 벽 넘어 창고에서 술이 나오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려는 나름의 실험이었다.

그렇게 해서 양식 제출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으며 이제 또 한차례의 중대한 진전인 식품점 맥주 판매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까지 47년의 세월이 더 흘러야 했다. 술을 구입하는 신분증제도, 벽뒤에 가리고 술을 판매하는 방식 등이 철폐됐지만 다른 관행은 여전히 유지됐고 불편함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60년대 중반 이후 온주 주류판매시스템에 대한 연구 조사가 7차례나 있었다. 전문 위원회가 개선책 강구를 위해 가동됐는데 대부분의 조사결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변화의 당위성을 제시했고 그럼에도 실제로는 극히 미온적인 개선이 있었을 뿐이었다.

계속되는 불편함과 시스템의 불공정은 의도적으로 보인다. 9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온주주류 시스템은 3가지 근본적 신념에 기반해왔다. 첫째, 술 소비와 관련한 사회적 폐해와 주민보건 차원의 위험을 막고 감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술을 사고 소비하는 행위가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인임에도 술 소비와 관련한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책임성있는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다. 셋째로 술 판매면역 소매채널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장경쟁과 사회적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이룰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2018년 6월에 온주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해 정권이 교체됐다. 새 정부는 온주가 이제충분히 여건이 무르익어 다른 주와 다른 나라처럼 성인을 성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믿음을가졌다. 새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니며 합법적 제품을 사러 그리 먼 거리를 차로 운전해 가서는 안되고 집근처에서 편하게 쇼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경쟁이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할 것이며 민간 영역이 다른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다. 2018년 11월 가을 경제 보고서에서 온주 재무장관은 정

부가 술 판매 및 소비와 관련한 규정을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은 현행 술 판매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보고서는 완성 후 재무장관에 제출키로 했으며 두개의 근본적 영역에서 현대화 작업을 이룰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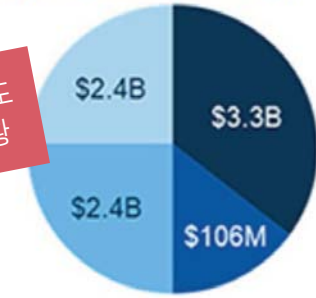
첫째,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술 판매에 있어 더 많은 민영 업소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대담한 조치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하에 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1969년 LCBO가 처음으로 손님 스스로 술을 고르는 시스템으로 바뀌자 많은 비판이 있었다. 사회적 폐해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뿐이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회가 그 시스템에 금방 적응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할 내용이나 권고사항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장담한다. 과거 술하게 검토했던 개선안들은 미온적이거나 어정쩡한 개선 수준으로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앞으로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또 5년 또는 10년 이후 새롭게 개선 검토작업을 한다고 할 것이며 역시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논의만하고 말 것이다. 온주 정부는 이제야말로 소비자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해서 거의 1세기가 가까이 끌어왔던 대담한 변화를 시도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3. 기존 시스템 현황

공영(公營)	사영(私營) - 오프라인(소매채널)	사영(私營) - 제조현장 소매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BO - 663개 - 공영 주류 판매망으로 세계 최대 규모 - 모든 종류의 주류 판매와 수입(importing)권 보유 - 순익 : 21.2억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 수익금은 주로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BEER STORE - 450개 - 3개 다국적 맥주 회사 소유 - 12개, 24개 팩 맥주 독점 판매, 시중 음식점에 맥주 독점 공급권 ● Grocery Stores - 364개 식품점 (비어/사이더 판매) 70개 업소(와인 판매), 68개 업소는 와인 부티크 - 공급처는 LCBO ● LCBO Agency Stores - 209개 소매업소가 대리점으로 운영하며 LCBO 소매 아웃렛보다는 작은 규모 - 주로 편의점 혹은 식품점에서 겸업 운영 - LCBO 감독하에 운영 - 공급은 LCBO와 TBS로부터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개 와이너리 ● 224개 맥주 양조장 ● 33개 증류소 ● 40여 개 이상 사이더 제조사

All Alcohol Sales by Product (2017-18):



2017/2018 회계연도
제품군별 매출 현황

Total \$8.2B

- Beer
- Wine
- Cider
- Spirits

Wines Sales by Channel:



판매채널별
와인매출 점유율

Beer Sales by Channel:



판매채널별 맥주 매출

Liquor Control Board of Ontario (LCBO) 官營

- 정부가 운영하는 주류 도·소매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 현재 663개가 있으며 연 매출 62.4억 달러를 기록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알콜 소매 채널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 2017/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부 수입에 기여한 순익은 21.2억 달러였다. 수익은 주로 교육, 보건, SOC 구축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LCBO모델은 일반적인가?

북미주 대부분의 주는 주류 공급과 소매 판매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온주 LCBO와 유사한 정부 운영 소매 채널망을 거느린 곳으로는 B.C, 사스캐추원,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시아, PEI, 뉴펀들랜드, 유콘 준주가 있다. 미국은 알라바마, 아이다호,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유타, 버지니아 주가 이에 해당된다.



캐나다한인여성회 2019년 7월 프로그램

사전등록 필수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지참

전문 유아교사와 함께하는 알찬 섬머캠프

☐ 일시: 7월 2, 3, 4일 (화, 수, 목)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30분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유연, 최성혜 (문의: 416-340-1234)

☐ 내용: 전문 유아교사와 함께하는 음악과 놀이, 미술, 요리, 신체활동, 구연동화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4-6세의 어린이를 위한 캠프

✓ 선착순 20명 (대상: 4-6세) / 한국어 진행
✓ 등록비 \$30 (간식 및 재료비 포함)
✓ 오전 9시30분부터 Drop off가능

☐ KCWA 노스옥센터 사무실
5075 Yonge St, Suite 401, North York

☐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540 Finch Ave. W, 2nd FL North York

혼자하는 영주권카드 갱신

☐ 일시: 7월 9일 (화) 오후6시 - 오후8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영주권카드 거주유무 규정
2. 영주권카드 신청 및 갱신 안내
3. 준비 서류와 진행
4. 신청서 작성의 실제
5. 사례 나누기 및 질문과 답변

캐나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

☐ 일시: 7월 11, 18, 25일 (목)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2.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3. 캐나다의 정부, 사법시스템
4. 캐나다의 상징, 경제, 지리
5. 문제풀이

'착한사람 콤플렉스' 탈출법

☐ 일시: 7월 8, 15, 22일 (월)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박민희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
2. 반복되는 대인관계에서의 상처
3. 남들에게 쏟는 관심과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리기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

☐ 일시: 7월 9, 16, 23, 30일, 8월 6, 13일 (화) 총 6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가정상담원 김진옥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초등학교의 발달 특성
2. 새로운 세상-학교, 자녀 그리고 부모참여
3. 내 자녀의 또래관계 발달 및 특징
4. 자녀의 진로를 위한 부모의 역할
5.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우리가족시간"
6.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실천 계획서 만들기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차 계약

☐ 일시: 7월 23일 (화)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베더스트-핀치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이선경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온타리오 임대차 관련 법률
2. 임대차 계약의 특성
3. 주거용과 상업용 임대차 계약의 차이
4. 문서관리 및 공증 등의 중요 절차
5.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

무료이동진료

☐ 일시: 7월 23일 (화) 오전10시 - 오후3시

☐ 장소: KCWA 노스옥센터 사무실

☐ 담당: 정착상담원 주명숙 (문의: 416-340-1234)

☐ 내용: 1. 자궁경부암 검사
2. 질염검사
3. STI 검사

*선착순 15명(사전예약 필수)
*OHIP카드 없이도 진료 가능
*통역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7월 13일, 27일(토) 오전10시 - 오후2시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416-340-0838)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순회 상담 서비스 안내

-일시: 7월 15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 4시30분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 (555 Avenue Rd, Toronto)

-문의: KCWA캐나다한인여성회 (416-340-1234/ 416-340-1777)

중·소 기업 K-Beauty 캐나다 진출

OKBA, KOTRA 주도해 성사



▲ 협약서 체결 후 서명자 6명이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중앙의 정태인 총영사를 중심으로 좌측에 본부협회신재균 회장, 우측에 토론토 무역관 정영화 관장)

모국의 견실한 중소기업 화장품이 캐나다 시장 진출의 첫 발을 디뎠다. 소위 '케이 뷰티(K-Beauty)'가 캐나다 도·소매점 진출의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7월 3일(수) 본부협회가 최근 마련한 회의장에서 협회와 해당 제품 공급사 등 이해당사자 4개 주체가 모여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세계 화장품 업계에서 한국 화장품이 가지는 위상은 이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권역은 물론 유럽에까지 기세를 뻗어 뷰티 산업 대국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면세점이나 명동 거리에서 화장품 싹쓸이 관광을 하는 풍경은 벌써 낯익은 장면이 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명세를 기반하고 있는 기존 대형 화장품 회사의 이야기이며 틈새 시장을 엿보는 중·소 화장품 회사의 훌륭한 제품들까지 해외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캐나다 진출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반을 구축하는데 협회가 1000여개의 회원 업소를 판매망으로 앞세우고 도매 공급은 협동조합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협회 신재균 회장은 “추가 수익 창출 차원에서 회원 업소가 취급할 충분한 잠재 가치력을 가진다.”면서 “조합에서도 위탁 판매(consignment) 형식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렸다.

한편, 토론토 무역관(KOTRA Toronto)은 협회(조합)와 화장품 관련 및 수입 업체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아 수차례 협회와 조합 그리고 해당 업체들을 방문하며 상호 연결 고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는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맡기로 했다.

계약 당사자들은 협회가 ‘값’, 6개의 공급사가 ‘을’, 수입과 재고관리 및 결제 등을 전담할 FNS인터네셔널사가 ‘병’ 그리고 토론토 무역관이 ‘정’으로 일반 협약서와 부속 협약서에 해당하는 세부 이행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협약서 체결식은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정영화 무역관장은 인사 말에서 “U20 대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은 한국 축구에서 보듯 한 사람의 걸출한 MVP만이 아니라 밀어 주는 다른 구성원들의 팀플레이 덕분에 모두가 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계약 당사자들의 팀워크로 좋은 결과를 얻자고 강조했다.



▲조합 매장에 설치한 K-Beauty 진열대. 6개 판매회사의 대표 제품들이 화려한 외관을 뽐내며 쇼핑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한편 이 자리에는 토론토 총영사관 정태인 총영사도 협약식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정 총영사는 부임하자마자 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1000여개 편의점 채널망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인 바 있었다. 이후에도 토론토 무역관을 통해 협회의 조직을 활용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새로 부임한 정영화 무역관장 또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협회와 자주 접촉한 끝에 이날의 체결식까지 이른 것이다. 정 총

영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협회의 조직망 활용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이번 사업의 번창을 기원했다. 체결식 취재를 위해 동포 언론들도 분주했다. 참석자들은 체결 행사 후 협동조합에 설치한 진열코너를 둘러보며 향후 사업 전망을 놓고 고무적인 대화를 주고 받았다. ■

〈11면에 이어〉 선택과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上)

● 또다른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온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LCBO 시스템과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선택의 폭에 있어서 그런데 쇼핑 경험이 전반적으로 호의적 반응이며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후한 평가를 하고 있다.

● LCBO 온라인 주문 시스템은 당일 주문 당일 수령이 가능하고 배달은 주문 다음날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인 독일 음식배달 서비스 회사 Foodora와 제휴한 'On-Demand Delivery'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다. 또, LCBO 앱은 45만명 이상이 활발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바코드 스캐닝이 가능하고 자신의 현 위치에서 가장 최근거리의 매장에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다.

● LCBO 소식지인 'Food and Drink'의 구독자는 대략 225만 명으로 추산된다. ■

(다음호에 계속)

UKCIA 임시총회/경제세미나 개최 주요 장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식의 대부분의 시간은 헌화식에 바쳐졌다. 신재균 회장과 협회 이사이자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주점식 회장도 헌화식에 참가했다.



의사당 옆 페어몬트 호텔에서 참전용사와 유가족 그리고 행사 추진 관계자와 일반 초대 손님들 약 300여 명이 모여 한식 부페로 오찬을 함께 했다.



주 캐나다 세계 주요국 대사관의 무관 부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흥겨운 명곡들을 불러 여흥을 돋우었다.



새로 이전한 연방 상원 의원 본관 부속 회의실에서 UKCIA 경제 세미나가 열렸으며 관심사들이 활발히 교환됐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마이클 베렛 의원과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뒷줄 의원을 중심으로 좌측은 본부협회 신재균 회장, 우측은 심기호 협동조합 부이사장)



퀘벡 편의점 술판매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한 한 독립편의점 업소 입구. 특정 브랜드 맥주 광고판이 있고 쇼윈도우에도 선전을 하고 있다.

베이핑 제품 취급실태, 연방 단속 나서

미성년자 관련해 조사 집중 예상

연방 보건부는 지난 6월 14일자 공문 발송을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베이핑 제품 취급 소매업소에 대해 취급 시 주의할 사항들과 위법 시 처벌 내용 등을 두루 소개하면서 준법 정신을 강조했다. 서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본 서신은 담배와 베이핑 제품에 관한 법률(TVPA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이하 TVPA로 칭함)하에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주의 책임성을 상기코자 한다. 조만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스토어를 방문해 취급 실태에 대한 실사를 벌일 것이라는 점도 알려준다.

연방 보건부는 TVPA의 집행을 관장하는 책임 부처이다. 보건부 감독관들이 TVPA 준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할 대상으로는 1,000 개의 전자담배 전문판매업소와 2,000 개의 편의점이 포함된다.

중점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대상 베이핑 제품 판매 여부
2. 미성년자 대상 베이핑 제품 판촉 실태
3. 라이프스타일에 호소하는 베이핑 제품 광고 현황
4. 체험 증언식 판촉 및 스폰서십 판촉(testimonial or endorsement promotion)

5. 미성년자 취향을 자극할 수 있는 향 가미 베이핑 제품 판촉 실태
이번 실사에서 위반 사항 발견 시 다양한 조치를 발동할 것이다. 여기에는 경고서신, 몰수, 기소 등이 포함된다.

베이핑 제품 취급은 연방법인 TVPA뿐 아니라 주와 산하 지자체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이들까지 준수 토록 해야 할 것이다.

<TVPA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핵심 내용>

1. 미성년자에 제공 금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핑 제품도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공공 장소 또는 공중이 접근하는 공간에서 제공이 금지된다.

2. 청소년을 유혹하는 베이핑 제품 광고 금지

광고가 청소년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다면 이같은 광고는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업소 POS시스템 주변에 포스터를 통해서도 청소년에게 노출되므로 이런 수단도 금지 광고에 포함된다. 다양한 판촉물(*머그잔, 티셔츠 등)을 통한 제품 광고 또한 청소년에게 베이핑 제품을 간접 홍보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3. 라이프스타일 광고 금지

라이프스타일 광고(lifestyle advertising)는 해당 제품과 생활방식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연관시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흥을 불러일으켜 연상 작용에 의한 제품 홍보 효과를 노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려함, 여흥, 흥분, 활기, 위험, 사랑스러움 등 삶의 특정한 단면을 이용한 라이프스타일 전달 이미지와 해당 제품을 연결시키는 광고 기법이다. (*현대 젊은이들은 일반 담배 대신 깔끔한 베이핑 제품으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를 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체험 증언식 판촉 및 스폰서십 판촉 금지

체험 증언식(testimonial) 광고는 실제 소비자가 써보고 그 효용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흔히 동영상 광고에서 많이 접하는 방식이다. 스폰서십 광고(endorsement)는 유명인(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의 신체 및 애호물을 이용한 노출 광고이다. (*골프에서 타이거우즈의 모자, 운동화, 골프채를 연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5. 미성년자 취향을 자극할 수 있는 향 가미 베이핑 제품 판촉 금지

(*긴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과일향이나 맛이 난다는 제품 광고는 미성년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 처벌

- 위 1번 위반 시 1차 위반자에는 최대 3,000달러 벌금, 2차 이상은 최대 5만 달러

- 위 2번부터 5번까지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두가지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이상이 최근 회원 업소에 송달된 연방 보건부 서신 내용이다. 이미 온주 정부도 지난 10월 17일 Bill 36 의 발효를 발표하면서 연방에서 규제하고 있는 베이핑 제품에 대한 금지사항을 지키면서 여하한 판촉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었다. 그때 언급했던 연방법 금지사항이 이번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협회 실험뉴스는 이미 여러차례 연방 관련법 금지사항을 소개했으며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은 회원은 실험 웹사이트(www.okba.net) 지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이토비코 지구협회 골프대회

2019 이토비코 지구협회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7월 24일(수) 오후 1시
- 장소 : Piper's Health Golf Club
(5501 Trafalgar Rd., Milton ON)
- 참가비 : \$120 (그린피, 저녁식사 포함)
*골프공 1박스 무료 제공

참고사항 : 신청 마감은 7월 15일까지이며 지구협회장에게 연락바랍니다. (416-895-1277)

이토비코 지구협회장 이두승

OKBA골프토너먼트 주요 장면



만찬장 모습



환영사를 하는 조성준 장관



그랑프리 경품 앞에서



남성 챔피언(이해권)과 여성 챔피언(차나경)이 시상후 신재균 회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 기습 실사

쥬울(JUUL) 제품 짜퉁 거래 절대 피해야



인기 조절정을 달리는 전자담배의 지존인 쥬울(JUUL)사가 짜퉁 제품을 비롯한 불법 유통 제품 자체 단속에 나섰다. 워낙 인기가 높다보니 일부 소매업소에서 중국산 위조품을 은밀히 취급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회원 업소의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자담배를 둘러싼 지하시 장의 양상이 어떠한 불법유통 전자담배는 쥬울 뿐 아니라 여하한 회사의 짜퉁도 취급해서는 안된다.

최근 회원 K씨 업소를 방문한 한 손님은 경찰까지 대동하고 쥬울 제품을 면밀히 살핀 후 일부 물량을 압수해갔다고 한다. 손님의 신분은 변호사였다고 한다. 업무에 익숙치 않은 젊은 종업원이 마침 가게를 보던 때라 정품만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변호사가 고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쥬울 제품 일부를 가져간 것이다. 출타했다가 돌아온 K 회원은 터무니없는 상황에 대해 "전자담배건 일반 담배건 오로지 정품만을 취급해왔는데 어린 종업원을 으름장을 놓아 물건을 몰수하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부협회에서는 문제의 변호사를 접촉해 항의를 했고 쥬울측 고위층에도 이 사건의 전말을 직접 전하며 정품 취급 회원에 대한 부당한 횡포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K씨 사례에서 보듯 멀쩡한 정품임에도 쥬울사의 반응이 저토록 예민한 상태이니 위조품에 대해서는 얼마나 과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미스터리 쇼핑 수준을 넘어 변호사를 고용해 단속에 나선 정도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절대로 잘 나간다고 위조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품을 취급하면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 쥬울이 고용한 변호사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정품인 한에서는 물건을 내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위협적 언사로 부당하게 물건을 취하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정품이라면 냉정하게 거절해도 무방하다. ■



▲ 플라스틱 백 퇴출에 대비해 질긴 재질의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이 등장했다.

PEI가 국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일명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Plastic Bag Reduction Act)'이 지난 7월 1일 부터 발효됐다. 소매업소 계산대에서 쇼핑

PEI

일회용 백 없애기 최초의 州

물건 싸가라고 일회용 플라스틱 백을 제공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대신 업소들은 종이백은 제공할 수 있고 손님이 원하면 한개에 최소 15센트 이상을 받는 유료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노바스코시아 주도 헬리팩스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시 의회가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조례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동일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노바스코시아의 다른 9개의 큰 지자체들도 유사한 조례 만들기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이다.

대서양의 이같은 움직임에 더해 태평양에서는 친환경 업소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B.C주는 폐기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회용 포장 용기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업소들이 생기고 있다. 고객들이 담을 용기를 직접 휴대하고 와서 쇼핑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수제 아이스크림 판매업소는 손님보고 아이스크림 퍼 담을 용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만약 안가져 오면 용기 제공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 ■

책상 앞에서



이곳에서 누가 나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자영업이라고 말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업무들이 전문화되고 분업화되어 있지만 내가 일하는 편의점에서는 나와 집사람이 모든 일을 나누어 꾸려 나간다. 그중에서 내가 맡아하는 일중의 하나가 현금관리다.

손님들이 물건 값을 지불할 때 요즘에는 대부분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그냥 주머니에 꾸겨넣고 다니는 사람, 조그만 수첩이나 편지봉투 또는 로또 슬립 같은데에 넣고 다니며 사용하거나 크립을 이용하여 돈을 반 접어 갖고 다니는 사람,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양말 속에도 넣고 다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보관한다.

현금을 지불할 때 주머니나 다른데서 돈을 꺼낼 때는 돈이 더 많이 구겨져 있고 또한 찢겨진 경우도 많으며 가장자리가 접혀져 있거나 1/3정도가 찢려 나간 돈 그리고 불에 타거나 눌어진 돈 등 갖가지 모양의 돈들이 들어온다.

돈을 받으면 우선 신권인 경우에는 흠없고 티없는 첫번째 것을 야훼께 바쳤다는 성경 말씀대로 성당에 봉헌할 때 쓰려고 따로 모아둔다. 그리고 돈이 찢어진 경우에는 스카치테잎으로 표시 안나게 잘 수리하여 사용하며 수리가 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무 허접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테잎을 떼어내고 다시 수리 하는 경우도 있다.

동전을 받는 경우에도 담배 진이나 끈적거리는 것 등이 묻었을 경우에는 페이퍼 타월에 올려놓고 원택스를 뿌려 깨끗이 닦아 사용하고 너무 지저분하거나 찌그러지고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모았다가 은행에서 교환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날의 돈을 정리하면서 20불 짜리는 가게에 있는 ATM기계에 넣으려고 책상에 앉아 깨끗한 돈과 그렇지 못한 돈을 구별하는 별도의 선별작업을 한다. 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문득 우리가 젊었을 때 있었던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을 떠올린다. 병아리가 태어나면 암수를 구별하는 직업인데 얼마나 많은 수를 감별하느냐와 얼마나 정확히 감별하느냐에 따라 몸값이 정해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마치 새 돈과 현 돈을 구별하는 돈 감별사가(?)된 양 빠르게 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깨끗한 돈을 구별하는 기준은 첫째가 돈이 오염되었거나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되고 둘째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접혔다거나 특히 가운데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접힌 흔적이 있어서도 안되며 가장자리가 접혀 있어서도 안된다. 다음으로는 돈이 수리되어 있다거나 자글자글하게 너무 많이 구겨진 돈들도 제외 시켰다.

몇년전에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젊은사람이 자기 이름을 적어놓은 돈을 갖고와서는 거기에 사인을 해 달라고 청하였는데 돈을 그리 함부로 다루서는 안된다고 사인을 거절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돈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수염을 그려 놓는다가나 또는 계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은행에 디파짓을 하거나

도매상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하고 깨끗한 것만 ATM기계에 집어넣는다.

구겨진 돈을 보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마치 은행에서 금방 발행된 신권같이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구김이 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구겨진 돈이 흡사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돈을 선별할 때 깨끗한 돈은 주저없이 좋은 쪽으로 분류되지만 이 돈은 어느쪽으로 놓아야 하나 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훗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선택되는 그 선별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는 화두에 접하게 된다

나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깨끗한 돈을 선택할 때처럼 망설임 없이 선택되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는 고개가 가우뚱해진다. 그렇게 선택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 나와있는 십계명대로 살아야 하는가? 사회의 법과 윤리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러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돈이 중간에 접혀져 있듯이 반으로 똑 접혀진 인생, 여러번 접히면서 접힐 때마다 힘겹게 일어난 인생, 수없이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헤쳐나온 인생, 밝은 인생과 어두운 인생, 칭찬받을 인생과 비난받을 인생, 본받아야 할 인생과 반면교사로서의 인생, 기억되어야 할 인생과 잊어버려야 할 인생 등 수없이 많은 방법의 삶으로 우리들은 살아오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이 여러번 구겨져 있고 또 가장자리가 접혀져 있듯이 모두들 다 흠이 있고 결점을 갖고 있다. 비록 구겨진 돈과 같은 인생이더라도 누구에게 건네 줄 때 미안하고 부끄럽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정화작업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한다. 아마도 그러한 작업은 나 자신을 더욱 존중히 여기며 생활하고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더욱 더 배려하며 또 시간을내어 봉사활동을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나의 삶이 정화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잔잔히 흘러가는 강물같이 균형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 나라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금만 잘해도 천국으로 선택된다거나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두번 실수를 하였다 하여 천국에서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닌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선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지는 눈같이 희고 깨끗한 나라일 것이다.

누군가 나를 평가할 때 아~ 이사람? 하면서 조금도 지체하거나 망설임 없이 선택되어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당신은 이곳에 들어올 충분한 자격이 있으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소. 아서 들어와 하느님의 정원에서 편히 지내시오! 하는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며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다시한번 다잡아보고 나한테 주어진 삶을 충실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하루 역시 책상 앞에서의 돈 선별작업은 계속된다. ■

OKBA 골프토너먼트 성료



협회 회원들의 우애 다지기는 물론 공급사와의 친선 도모를 위한 OKBA골프토너먼트 행사가 화창한 날씨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작년과 같은 장소인 글레이글 골프클럽(Glen Eagle GC)에서 200여 명의 회원, 자문위원, 한인 커뮤니티 VIP, 공급사 관계자들이 어우러져 개인 대항전(stroke play)방식으로 치렀다.

과거에는 베스트볼 방식이었다가 일부 개인 대항전을 혼합해보기도 했다가 작년부터 개인 대항전으로 일괄 통일해 시도한 결과가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6시 전후해서 참가자 전원이 경기를 끝냈고 만찬만 참석하는 인사들까지 약 210여 명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시상은 작년보다 범위를 확대해 총 17명에게 상품이 주어졌다. 챔피언은 과거 킹스턴 지구협 회장을 지낸 마 있는이해권 회원이 차지했으며 (7타) 뒤를 이어 1,2,3 등도 가렸다.

일반회원 조 순위별 3명, 여성 회원 순위별 3명, 공급사 팀별 3위를 각각 가졌으며 장타상과

근접상도 4명에게 주어졌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은퇴자가 많은 자문 위원들도 18홀을 모두 소화하는 노익장을 과시했으며 클럽 하우스 만찬장은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공급사와 VIP를 일일 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문위원 소개는 별도로 진행했다. 신재균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온주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이 수행원을 대동하고 만찬에 참석해 특별 손님으로 환영사를 전했다. 협회의 평소 도움에 감사를 전하며 최근 편의점 최대의 관심사인 비어와인 판매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고 큰 박수를 받았다.

레플 티켓 추첨은 2만 여 달러에 상당하는 상품을 놓고 일회일비를 반복하는 흥미 만점의 시간이었다. 저녁 메뉴는 스테이크와 닭고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짜였으며 음료를 무료로 마음껏 들 수 있는 오픈바가 운영됐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타월세트를 제공했다. (화보 15면) ■



K.B.A. 협동조합

■ K.B.A. 운영 이사장 : 신영하 (Youngha Shin)
K.B.A. 부이사장 : 심기호 (Kenny Shim)

■ K.B.A. 운영이사 (가나다순)
김대영 (Dae-Young Kim)
송명현 (Myeonghyeon Song)
신재균 (Jae Gyun Shin)
이두승 (Doo-Seung Lee)
이만석 (Man Suk Lee)
허창훈 (Chang-Hoon Huh)

■ K.B.A. 감사 (가나다순)
백사열 (Sah-Yeal Paik)
장해민 (Hae Min Jang)

■ K.B.A. 총괄부장 : 권혁선 (Hyuk Sun Kwon)
■ K.B.A. 사무장 : 배 줄리아 (Julia Bae)
■ K.B.A. 협동조합 사무실
Tel (416) 789 - 7544
Fax (416) 789 - 5013
■ K.B.A. 협동조합 매장
Tel (416) 867 - 1444




STAGE 1



**BLU ASSORTMENT-PODS
STARTER KIT**
device, charging cable and
two pods(tobacco & menthol)
소매마진 25%

SPECIAL OFFER
\$17.99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substance.

**BLU ASSORTMENT-PODS
POD PACKS**
available in both 24mg/ml
and 48mg/ml NIC strength
\$12.99 (MSRP)










■ KBA 협동조합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416) 867-1444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905) 568-7909
 (800) 387-8400
 Saint Jimmy's Coffee Service ----- (416) 250-9427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 스낵

Frito Lay Canada -----(905) 460-2414
 South Cove ----- (905) 829-3666
 Conagra Brands Canada ----- (416) 679-4200

■ 샌드위치

Classic group of companies ----- (866) 760-1926
 A Biz Gourmet(Shirley 부사장) -----(866) 760-192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800) 500-5634
 Mars Canada Inc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 ATM / Debit

Touch Cash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Solution -----1- (888) 554-7355

■ 잡지

Metro 360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905) 272-4339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416) 250-3550
 외환은행 -----(416) 222-5200
 이방록(회계사) -----(416) 221-2009
 박호진(보험중개인)----- (416) 985-5287

■ 언론사

한국일보 -----(416) 787-1111
 중앙일보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종합캐쉬레지스터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416) 909-7114

■ 광고 미디어 전문 대행 회사

Adapt Media ----- (416) 856-4466

■ 기타

Kocom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헬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Yeno Trading ----- (647) 967-6561
 용역 회사 Tyson Lee ----- (647) 545-0922
 Atlantic Prepaid Card ----- (888) 479-7779





Sincere Trading of KBA
West Mall Branch

Special Sale JULY



Excluding
Java Flavour
Bottles

Monster
444/473ml **Spe.\$21.99**



9⁹⁹

Snapple
Snapple 12/473ml All Flavours
Reg.\$12.55 **Spe.\$9.99**



2⁷⁹

13⁴⁹

Nestle Purina
Beggin Strips Dog Treats 170g All Flavours Reg.\$3.15 **Spe.\$2.79**
Friskies Wet Cat Food Reg.\$16.09 **Spe.\$13.49**



35⁹⁹

Red Bull
24/250ml Original Only Reg.\$39.99 **Spe.\$35.99**
24/355ml Original Only Reg.\$60.99 **Spe.\$57.99**

18⁹⁹



Fiji
24/500ml Reg.\$24.49 **Spe.\$18.99**
12/1L Reg.\$22.29 **Spe.\$16.99**
12/1.5L Reg.\$26.69 **Spe.\$19.99**



15⁹⁹

3²⁹

2⁴⁹

Smuckers DLM
PUP-peroni 75g All Flavours Reg.\$1.79 **Spe.\$1.59**
PUP-peroni 158g All Flavours Reg.\$2.75 **Spe.\$2.45**
Jerky Treats 170g All Flavours Reg.\$2.75 **Spe.\$2.49**
Alley Cat 2kg Reg.\$3.69 **Spe.\$3.29**
Meow Mix Original Choice 500g Reg.\$2.25 **Spe.\$1.89**
Meow Mix Original Choice 2kg Reg.\$6.49 **Spe.\$5.39**
Milkbone 113g All Flavours Reg.\$1.85 **Spe.\$1.59**



Vidal Candy

1.2kg All Flavours Reg.\$7.49 **Spe.\$6.49**

6⁴⁹



C.B Powell

Blue Diamond 170g All flavours Reg.\$6.89 **Spe.\$4.19**
Blue Diamond 12/43g All flavours Reg.\$21.49 **Spe.\$13.99**

13⁹⁹

4¹⁹



Mondelez

Chips Ahoy 300g All Kinds Reg.\$3.25 **Spe.\$2.85**
Oreo 300g All Kinds Reg.\$3.25 **Spe.\$2.85**

2⁸⁵



2⁸⁵



Cadbury

Single Bars All Kinds Reg.\$23.99 **Spe.\$22.99**

22⁹⁹



1⁸⁹

Dare

Real Fruit Gummies 50g-55g All Flavours Reg.\$16.35 **Spe.\$11.35**
Real Fruit Gummies 140g-180g All Flavours Reg.\$2.05 **Spe.\$1.89**
Traditional Candy Pegtop 200g-250g All Kinds Reg.\$1.89 **Spe.\$1.69**



1⁶⁹



Kelloggs

Pringles 148g - 156g All Flavours
Reg.\$2.39 **Spe.\$1.99**

1⁹⁹



17²⁹

12⁹⁹

18⁵⁹

Regal

Dubble Bubble Asst Twist Wrap Bag Reg.\$14.49 **Spe.\$12.99**
Juicy Drop Pop Reg.\$19.19 **Spe.\$17.29**
Dubble Bubble Gumball Machine Reg.\$20.99 **Spe.\$18.59**
Dubble Bubble Jackpot Gumball Machine Reg.\$25.29 **Spe.\$22.29**

2⁸⁹



Maple Leaf

Schneiders Red Hot Weiners 375g **Spe.\$2.89**
Schneiders Regular Weiners 375g **Spe.\$2.89**
Schneiders All Beef Weiners 375g **Spe.\$3.79**
JMS Grillems 375g All kinds **Spe.\$3.79**
JMS Juicy Jumbos 450g **Spe.\$3.79**

3⁷⁹

SUMMER SALE!



C.B Powell

Sugar Twin Packets 50's Reg.\$1.49 **Spe.\$1.39**
 Sugar Twin Packets 100's Reg.\$2.85 **Spe.\$2.59**



Clover Leaf

Brunswick Seafood Snacks 92g - 100g All Flavours Reg.\$1.55 **Spe.\$1.25**
 Brunswick Sardines 106g All Flavours Reg.\$1.35 **Spe.\$1.19**
 Value Added Tuna 85g All Flavours Reg.\$1.65 **Spe.\$1.45**
 Skipjack Tuna 170g All Kinds Reg.\$1.99 **Spe.\$1.45**
 Premium light Yellow tuna 142g All Kinds Reg.\$2.19 **Spe.\$1.69**



Green Giant

Canned Vegetables 341~398ml
 All Kinds Reg.\$1.49 **Spe.\$1.29**



Hunts

Hunts Pasta Sauce 680ml
 All Flavours Reg.\$1.99 **Spe.\$1.19**



C.B Powell

Stagg Chili 425g All Flavours Reg.\$2.85 **Spe.\$2.59**



Bertolli

Olive Oil 250ml Classico & Extra Light
 Reg.\$3.55 **Spe.\$3.19**
 Olive Oil 250ml Extra Virgin
 Reg.\$3.75 **Spe.\$3.29**
 Olive Oil 500ml Classico & Extra Light
 Reg.\$5.25 **Spe.\$4.95**
 Olive Oil 500ml Extra Virgin
 Reg.\$5.55 **Spe.\$4.95**



Conagra

Chef Boyardee 411g-425g
 All kinds Reg.\$1.69 **Spe.\$1.09**



Redpath

Sugar 10/2kg
 Reg.\$23.99 **Spe.\$18.99**



McCain

French Fries 900g Reg.\$2.69 **Spe.\$1.99**
 Xtra Crispy Fries 650g Reg.3.09 **Spe.\$2.49**
 Premium Super Fries 650g Reg.\$3.09 **Spe.\$2.49**
 Xtra Crisp Seasoned Fries 650g Reg.3.09 **Spe.\$2.49**
 Deep'n Delicious Cakes 510g Reg.4.79 **Spe.\$3.99**
 Deep'n Delicious Fruit Pies 680g Reg.4.79 **Spe.\$3.99**
 Delicious Cream Pies 400g Reg.4.79 **Spe.\$3.99**
 Pizza Pocket 3pack Reg.3.49 **Spe.\$2.49**



Sara Lee

Cheese cake 538g Strawberry & Cherry Reg.\$4.99 **Spe.\$3.59**
 Oven fresh Pies 1.04kg All Flavours Reg.\$5.29 **Spe.\$3.59**
 Pound Cake 304g Reg.\$3.59 **Spe.\$2.79**
 Cream Pies 55g - 765g All Flavours Reg.\$6.99 **Spe.\$4.69**



Always

- Always Ultra Slender w/ Flexi-wings 18'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Thin w/ 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Ultra Overnight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w/ 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Thin Ultra Long w/ Flexi wings 16's 4.69 **3.95**
- Always Ultra Regular 22's 4.69 **3.95**
- Always Thin Maxi Regular w/Flexi wings 10's 3.09 **2.95**
- Always Maxi Regular w/Flexi wings 18's 4.69 **3.95**
- Always Maxi Overnight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w/ Flexi wings 14's 4.69 **3.95**
- Always Ultra Thin Reg 16's 4.69 **3.95**
- Always Ultra Thin Long 20's 4.69 **3.95**
- ALWAYS RADIANT INFINITY REGULAR PADS**
- Flexi Wings 12pk 4.69 **3.95**
- Flexi Wings 16pk 4.69 **3.95**
- Reg 64pk 4.69 **3.95**
- ALWAYS THIN/MINCE FLEXI-STYLE**
- Pantiliners 60's Unscented 60pk 4.69 **4.09**



Cascades

April Soft Bathroom Tissue 4's Reg.\$21.49 **Spe.\$19.49**
 Fiest Paper Towel 2'S Reg.\$19.99 **Spe.\$17.99**



Tampax

Regular 10's Reg.\$16.89 **Spe.\$15.19**
 Super 10's Reg.\$16.89 **Spe.\$15.19**
 Super Plus 10's Reg.\$16.89 **Spe.\$15.19**



Cricket Lighters Pre Pack



West Mall Branch

169 The West Mall, Etobicoke
 T(416)867-1444 / F(416)789-5013

Business Hours

- Mon. 06:30 - 17:00
- Tue. 06:30 - 17:00
- Wed. 06:30 - 17:00
- Thur. 06:30 - 17:00
- Fri. 06:30 - 17:00
- Sat. 06:30 - 16:00
- Sun. 11:00 - 17:00**



2019 6.30~8.3



Doritos XL 2/\$7⁵⁰



Lay's / Doritos 2/\$3



Spitz 2/\$4

Frito Lay Canada에서는 2019년 6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일까지 클럽 골드 회원, 플래티넘 회원, 다이아몬드 회원에게 스페셜을 실시하오니 방문하는 판매 담당자 또는 드라이버에게 문의하세요. 4주 한정기간 동안 프로모션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스페셜 상품들은 OKBA프로그램 스토어에도 적용됩니다.



- 최소 주문량 \$50
- 다양한 제품 오더 가능 (Single Serve, Take Home, Convenience Food, etc)
- 직접 재고 관리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주문 가능 (무료 배달/주문 후 이틀안에 배달 완료)
- 충분한 유효기간 (창고에서 직접 포장)
- Single Serve는 Snack to you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Online at snackstoyoucanada.ca or Phone 1-866-404-8881

Happiness is simple